

# 인종 정의 현장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인종 정의 현장”을 1952년에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1962년에 우리 조직의 단계별로 이 인종 정의 현장을 승인하며 그동안 개정된 내용을 다시 채택하였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의 온전한 몸으로 결단하기를 추구하면서, 여러 해 동안 연합 감리교회가 인종 정의 현장을 채택할 것을 로비 하였다. 1964년에 총회로부터 처음으로 인종 정의 현장을 승인받았고 1980년에 결의서 (The Book of Resolutions)에 처음으로 인종 정의 현장이 들어갔다. 그 때부터 계속 총회의 대의원들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재 채택되고 있다. 1950년부터 지금까지 이 현장은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어 왔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

1.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사람들은 한 식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2. 인종차별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이다;
3. 인종차별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화해를 부정하는 것이다;
4. 인종차별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인간됨을 빼앗아 가는 것이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정치적 착취를 하기 위한 정당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5. 우리는 하나님 앞과 우리 서로의 앞에서 우리들이 다른 인종의 우리 자매와 형제들에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6. 우리는 모든 여자와 남자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믿는다;
7. 우리의 강점은 우리들의 인종과 문화의 다양함에 있고 각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고 양육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들은 노력하여야 한다;
8. 정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새로운 자세, 새로운 이해, 그리고 새로운 관계성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교회와 국가 모두의 법률과, 정책과, 구조와, 실천 행동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우리 각자는 개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한 각 사람과 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권리와 자기 결정 능력을 위하여 싸울 것을 엄숙히 약속한다.

**그러므로,** 전국 곳곳에 사는 연합감리교회 교인으로써,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모을 것이다.

1. 교회의 전체 사역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인종 차별주의를 없앤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지원하는 기관들에 대하여, 그들의 고용 정책에서부터 물품 구매 방식, 환경 정책들, 그리고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과 시설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2. 모든 인종 그룹과 경제적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단력을 강화하면서, 개체 교회 안에서 현재 보여지는 인종 차별적인 태도와 교인들 사이의 사회적 거리감에 대하여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3. 모든 인종들이 연합 감리교회의 교인들이 되도록 권유하는 노력을 더 하고, 지도력 개발의 기회에 인종 차별이 없도록 한다.
4. 각 인종의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교회와 지역 사회에 공헌 하였는지에 대하여 배우고,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개체 교회에서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개최한다.
5. 평등한 교육, 주거, 고용, 의료 혜택, 그리고 환경 정의 등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개체 교회들이 관심을 더 갖게 하고,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6. 유엔의 인권 사약에 대한 승인을 후원 등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인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위한 전국적 그리고 국제적 정책의 개발과 시행을 위하여 일한다.
7. 교회와 지역 사회 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범 세계적인 투쟁을 후원하고 참여한다.
8. 계속되는 인종 차별 때문에 불공정하게 피해를 받은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지도력 기회를 우선적으로 받게 하는 체제를 채택하여서 모든 인종 그룹을 포함하는 공천 및 선거 과정을 활성화 한다. 인종의 형평성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실천과 함께 우리의 인종 정의에 대한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